

# 왼손에 대한 억압과 금기의 역사

《왼손과 오른손》 펴낸 주강현씨



왼손에 대한 억압과 금기의 역사를 파헤친 이 책은 역사에 대한 푸코적 명제를 되살려낸다. ‘옳은 손’에 의해 억압된 ‘틀린 손’의 역사는 바로 ‘타자성’에 대한 주목이며 기록되지 않은 것의 복원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에르츠부터 가드너까지 방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아동교육의 왼손잡이 문제, 미술사의 좌우 대칭, 사상과 언어학상의 의미 등 인류사에 깃든 좌우 상징을 일종의 ‘테마사’로 재구성하고 있다.

왼손잡이 연구의 효시로 꼽히는 에르츠, 소수 민족의 풍부한 민속지적 풍경을 수집한 니덤, 구조주의 인류학 방법론으로 쌍분 조직의 이론을 펼친 레비-스트로스, 해박한 지식으로 좌우에 관한 자연과학의 세계를 총괄한 마틴 가드너 등 좌우 상징을 연구해온 학자들의 면면을 보면 주씨의 말은 저절로 입증된다. 그는 이런 선행연구들과 함께 지리학의 공간과 장소, 아동교육의 왼손잡이 문제, 미술사의 좌우 대칭, 건축학적 공간 개념, 유전학과 진화론의 연관성, 복식사의 패션 양상, 언어학상의 의미, 종교학의 성숙 구분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인류사에 깃든 좌우 상징을 일종의 ‘테마사’로 재구성하고 있다.

야만의 기록이 없는 역사는 있을 수 없다고 한 발터 벤야민은 “결을 거슬러 술질하는 것”이 역사가의 임무라고 설파했다. 미셸 푸코는 인간의 삶을 단일한 집합적 산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환원 불가능한 특수성에 주목하는 ‘반-기억’ (counter-memory)을 역사인식의 전범으로 삼은 바 있다. 역사에 대한 이런 발언들은 종종 역사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일어났던 일들, 머리보다는 육체에 새겨진 ‘반-역사’의 흔적을 강하게 환기시킨다.

### 인류사의 전영역 대상으로 좌우상징의 역사 살피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한겨레신문사)로 우리에게 친숙한 역사민속학자 주강현씨(48, 우리민속문화연구소 소장)는 최근 펴낸 《왼손과 오른손》(시공사)에서 역사에 대한 푸코적 명제를 되살려낸다. ‘옳은 손’(오른손)에 의해 억압된 ‘틀린 손’(왼손)의 역사는 곧 ‘타자성’에 대한 주목이며 기록되지 않은 것의 복원인 까닭이다. 이 책은 펴보기도 전에 우리 몸에 새겨진 레프트-심볼(left-symbol)을 동시다발적으로 자극하는데, 민속학자인 지은이가 이런 이데올로기 분석을 수행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좌우 상징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집단은 정치권과 언론입니다. 하지만 좌우상징은 사실 인류학과 민속학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국가나 계급이 아닌, 인류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민중들의 생활사에서도 끊임없이 변형, 지속됐기 때문이죠.”

### “문화는 시대의 기호에 따른 선택일 뿐이다”

주씨의 저술은 오른손 무한권력의 시대에 소수자인 왼손의 연대를 추구하는 의미도 있지만, 좌우 상징에 대한 다양한 민족지적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고자 하는 데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는 그가 1995년에 펴낸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초고’에 들어 있었다. 그런데 책 한권으로 확대시켜도 좋을 주제라는 생각에서 일부러 빼고, 1997년 《한겨레》에 축소시켜 발표한 적이 있다.

“집필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국내 연구성과물이 없다 보니 서양학자들의 논의에 많이 기대야 했죠. 게다가 전문분야가 아닌 온갖 학문들을 동원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주제여서, 역부족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주씨가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은 “문화는 늘 시대의 기호에 따른 선택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문화는 다원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므로 문화에 들러붙은 좌우의 관념 또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좌우 이분법에 따라 질서지워지고 있다. 이 책은 왼손에 대한 억압과 금기의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펼쳐나간다. 유치원과 가정에서 어린이들은 타고난 유전자와 관계없이 오른손잡이로 훈육된다. 대학강의실에는 왼손잡이를 위한 책상이 없다. 운전할 때나 컴퓨터

마우스를 쓸 때도 왼손잡이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불편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부르디외가 말한 '상징 폭력' 차원에서 가해지는 차별 대우다. 언어와 사상, 복식과 건축 같은 문화와 예술로 넘어오면 왼손 차별은 철저하게 내면화된다. 영어 'right-handed'는 믿을 만한 사람이나 심복을 의미하는 데 반해, 'left-handed'는 '서투른, 숨쉴 없는, 의심스러운'이란 뜻으로 통한다. 'Mary with the left-handed'는 '신분이 낮은 여자와 결혼한다'는 뜻이다. 우리말에서도 왼고개(바로 보지 않고 외면하다), 왼눈(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좌천(벼슬에서 밀려나다) 등 왼쪽에 부정적인 의미가 덧붙는 경우를 수도 없이 목격하게 된다.

### 근대적 과학주의로 우편향적 이데올로기 확산돼

그렇다면 왼손 차별은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났으며 이것은 전인류에게 보편적인 것인가? 이 책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다. 주씨는 역사상 좌우 차별은 합리적 과학주의가 전세제로 퍼지면서 더 강화됐다고 분석한다. 대량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 체제의 방향이 우측 편향이었고, 글을 쓰는 방향도 옛날에는 세로쓰기, 좌우 번갈아쓰기 등 다양했지만 문서편집기가 오른쪽으로 천하통일했다. 유교와 불교 문화권의 경우 '좌도(左道)와 '우도(右道)의 구별이 있었다. 우도는 바른 길이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갖가지 일탈은 '사도(邪道)라 해 좌도에 편입시켰다. 옷매무새에서도 좌임보다는 우임이 지배문화였다. 반면 벼슬의 명칭은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았다. 이렇듯 왼쪽에 대한 차별은 어느 정도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그 보편의 이음새가 얼마나 느슨한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한자문화권에서 그것은 문화적 구속력에서 오방, 음양, 오행, 앞뒤 등에 훨씬 못미쳤으며, 좌우의 대상과 시기에 따라 가치부여의 '선후'와 '농도'도 천차만별이었다. 계급적, 지역적 편차 또한 상당 부분 존재한다. 하지만 근대로 넘어오면서 종교 신앙적 억압을 대체할 새로운 억압 장치로 과학 기술문화가 군림하면서부터 오른손 지배 권력의 문화적 헤게모니는 견잡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다.

"문화적 진보 세대라고 하는 젊은 층에서 더욱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문화 현상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학교와 직장에서는 '왕따'라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좌와 우, 전쟁과 평화, 부와 빈곤 등의 갈등과 대립이 상존하는 사회에서 여전히 좌도와 우도, 좌익과 우익을 가르는 일도양단적 극단주의는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소수성의 문제를 재인식하고, 다문화주의적인 접근방식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 국내 인문학자들에 대한 쓴소리도 담아

이 책을 통해 주씨는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자의 위기"라고 설파한다. 폐쇄적인 학계에 대해 "근친상간적 학문교배를 통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그는 집필을 위해 자료를 조사하다가 좌우 상징에 대한 국내학계의 "연구 태만"을 보고 경악했다. 최근

미시사적 방법으로 생활사를 저술하는 신사학자(新史學者)들의 연구 경향에 대해서도 불만을 털어놓았다. 역사에서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주제를 탐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 주제가 지나치게 '탈정치화'돼 있어서 진실을 말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학문적 업적은 이른바 '정통'으로 일컬어지는 집단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주씨의 신념이다. 그런 믿음 때문에 그는 분과학문의 벽을 넘어 낯선 학문 분야에 거침없이 발을 들여놨다. 하지만 그는 넓은 보폭으로 깔끔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일상의 좌우 상징을 다채롭게 분석해놓고도 뭔가가 미진하다며 아쉬움을 표한다.

"주제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왼쪽에 대한 차별에는 대칭을 희구해온 문화사적 흐름 속에서 분명해지는 부분과, '서구-과학-오른손' '비서구-비과학-왼손'이라는 도식 속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의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되죠. 즉, 왼손이 단순하게 정신병원에 감금돼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단' 같은 정치적 좌우 갈림과 왼손에 대한 미신과 터무니없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성, 대칭성 등에 대한 인류의 문화적 대응을 철학적으로 탐색하는 진중한 학문적 연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강성민 기자



시공사/A5변형/364면/12,000원

### 전통과 민중문화의 파수꾼

주강현씨는 경기도 일산에 '정발학연(鼎鉢學硯)'을 세워 놓고 자료더미에 파묻혀 지낸다. '정발산 자락에 위치한 학문의 전당' 쯤 되는 이 연구실은 그가 직접 사재를 털어 지은 공간이다. 학문을 향한 이 전방위적 학자의 투자는 실로 엄청난데, 유명 건축가에게 의뢰한 이 연구실은 천장을 일반 건물보다 두배 정도 높여서 지었는데, 탁 트인 구조 때문에 하루종일 공부해도 짓누르는 듯한 피곤함이 없다고 한다. 벽면의 서가에는 《왼손과 오른손》을 쓰는 데 참조했을 만한 문헌들이 빼곡이 차 있다.

자신의 책에 대해 세간과 학계에서 반색을 표하자 주씨는 그동안 집필하느라 쌓였던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진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학문 스타일을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큰 것으로, 그러다가 망망대해로 나간다"는 말로 설명한다. 민속학을 전공해 서만이 아니라, 그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민중'이다. 이 시대의 민중들이 좀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그는 우리 문화의 원형을 탐구하는 데 정열을 쏟아왔고, 그런 정열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됐었던 것이다. 지난 십여년간 그는 매년 한권 꼴로 책을 펴내며 왕성하게 활동해왔는데, 이번 책 말고도 전세계의 '개고기' 문화를 탐사하는 문화탐구서가 곧 출간될 예정이라고 한다. '깊은' 학문보다는 '넓은' 학문을 추구하는 열정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